

집 '중'기 '획'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을 열다
 김병익의 신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새로운 이미지 살리며 점차 발전해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터뷰 | 오세곤 본지 편집위원

culture art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기존의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역사와 성과 그리고 자산 등을 안고 출범하는 것이기에 경영에 대해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예술위원회의 김병익 초대위원장은 문예진흥원의 성과를 바탕으로 혁신의 과제를 가지고 그 딜레마를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병익(193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 동아일보 문화부 기자 (65-75)
 - (주)문학과지성사 대표 (75-2000)
 - 보관문화훈장 (2003)
 - 문학평론가, 인하대 국문학과 초빙교수
 - (주)문학과지성사 상임고문, 토지문화재단 이사

오세곤(본지 편집위원장 이하 오) :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하 문예진흥원)이 1973년 법인으로 설립된 후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고 보니다만, 이제 그 성과를 안고 새롭게 출범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을 맡으신 데 대해 축하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그 어깨가 무거우리라 여겨지는데요, 우선 초대 위원장을 맡으시게 된 소감부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병익(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이하 김) : 감사합니다. 주위 많은 분들께 중책을 맡은 것에 대해 축하인사와 아울러 위로랄까 격려 인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학교나 조직에서 물러나 저 개인적으로 자유로운 생활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공적인 직무를 맡은 그 책임감이란 게 은근히 부담이 되는군요. 같은 분야는 아니더라도 저와 같이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동료들에게 경제적인 지원하는 예술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이니 그 무게감은 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술위원회가 기존의 문예진흥원의 역사와 성과 그리고 자산 등을 안고 출범하는 것이기에 운영에 대한 자유롭지 못한 점이 있기도 합니다. 문예진흥원의 성과를 바탕으로 혁신의 과제를 가지고 있고, 그 딜레마를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야겠습니다.

오 : 위원장으로 선정되시기 전에 먼저 11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는데, 11인의 위원이었을 때 활동에 대한 각오와 위원장으로 선정된 후의 각오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때 이것만은 꼭 추진되었으면 하셨던 일이 있으신지요?

김 : 제가 처음 예술위원회에 맡을 담게 된 것은 11인의 위원 중 문학 쪽 위원이었지요. 그래서 그때는 문학 분야에 대한 생각만을 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분야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자신의 영역이 있으니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다른 분야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토론하고, 그렇게 지원 사업에 역점을 두려했지요.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특별한 야심이라기보다는 문학 분야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쩌면 문학 한 분야에 국한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다른 분야도 유사하겠지만, 공급이 수요보다 더 많은 게 문화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시인이 시를 읽는 독자보다 많은, 역전된 공급층이 생긴 것이지요. 이 점을 타파하기 위해서 창작자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책을 읽는 향수자, 매개자에 대한 지원이 활성화 돼야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인의 한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전문 채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전에 다른 나라 방송을 보다보니 몇 시간씩 하는 긴 연극을 공연 그대로 중계하더군요. 그것을 보고 그 나라의 문화적인 저력이 대단하다고 느끼며 놀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순수예술을 중계하는 순수예술 전문 채널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손해를 보더라도 말이죠.

오 : 작년 「문화예술」지에서 TV속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관련하여 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원장님 생각과 같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문화예술 전문 채널이 생겨야 합니다. 적자를 문제 삼을 게 아니라 100% 국고를 들이더라도 당연히 문화예술 전문 채널은 있어야 합니다. 공영 지상파도 쿼터제를 만들어 문화예술 관련 방송을 일정부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김 : 문화예술 영역이 시장실패적인 영역이라고 하더군요. 예술위원회든 문화관광부(이하 문화부)든 시장실패적인 영역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나서야 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문화예술이 자율 시장에 내놓았을 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을 전제하고 손실을 투자개념으로 받아들여야지요.

오 : 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지원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민간 문화예술인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현장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순수민간 기구로서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출범한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초 목적대로 현장 예술가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낼 수 있을지 여전히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점을 걱정하고 계신데, 위원장님께서도 당초 설립목적에 부응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김 : 제가 따로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기보다는 예

술위원회 직제 자체가 그간에 원장 독립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현장예술과 문화정책, 그리고 지원이 서로 잘 소통되도록 하는 게 최우선이겠지요. 기존 문예진흥원의 경우 원장과 사무총장이 지원정책을 결정하는 주체로 되어 있지만, 예술위원회는 11명의 위원과 앞으로 구성될 소위원회에서 다양한 목소리들을 모아 운영하게 되는 것이니, 독립제의 단일한 소통에서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통의 활성화, 다양화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만 해도 예술현장과 예술지원정책과의 거리는 상당히 좁혀질 것이고 그 활동은 적극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들뿐만 아니라 신문방송 같은 언론매체나 각종 예술단체, 개개인의 예술인들의 의사나 건의 사항을 위원회와 소위원회에서 잘 수렴하여 현장의 바람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구조 자체가 잘 만들어져야겠습니다.

오 : 구조 자체가 여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복잡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요.

김 : 어느 것이나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러 의견을 듣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지요.

오 : 개정된 문예진흥법을 보면 매년 사업에 대해 문화부가 평가를 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고 조정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도 문예진흥원이 예산 집행에서 상당부분 문화부에 종속적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렇게 평가까지 하면 지원 사업에 대한 자율성이나 독립성이라는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겠느냐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가 어떠신지요?

김 : 충분히 우려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보면 예술위원회가 자의적으로 예산 편성과 정책을 세워 지원사업을 수행했을 때 올 수 있는 방만함이나 무책

임함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상호 견제라 해야 할까요. 긍정적인 측면으로 서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약점을 서로 커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 : 곁들여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항간에 문예진흥원의 위상이 너무 낮지 않았나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예술을 총괄 지원하는 기구인데 문화부 산하로 되어있기 때문에 힘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적어도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산하는 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김 : 위상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문화부 산하에 있던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산하에 있던, 문화예술 지원 기구를 자율 기구로 만든다면 어느 단체 산하든 상관없으리라 봅니다. 어차피 정부나 다른 기업 또는 문화단체와의 교차 평가는 피할 수 없는 문제니까요. 이런 평가가 있어야 제대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겠습니까.

오 : 예술위원회가 문예진흥원의 자산과 기금을 승계하는데요, 기금이 약 5천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엔 그 이자로 사업을 했습니다만, 기금 모금이 폐지되면서 위기를 맞기도 했고요, 그나마 복권기금으로 어느 정도 사업 집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와 관련해서 가장 큰 관심사는 지원예산의 확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산확보를 위한 대책을 가지고 있으신지요?

김 : 오 선생님 말씀처럼 작년 로또 복권 수익금의 일부가 문예진흥원의 지원금으로 들어왔죠. 사업들은 점점 확장되고 있는데 진흥기금은 점점 줄어드는 실정이라서 저 또한 재정적인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원금 확장은 우선은 복권 수익금에서 올려 받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얼마전 인사차 국회와 문화부에 들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관련자분들께서 예술위원회의 예산에 관해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시며 늘릴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보자고 하시더군요. 앞으로 더 많은 예산확보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산에 관해서는 정부 차원만이 아닌 시민들이나 기업들도 문화에 대한 태도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 차원에서 문화에 지원하고 후원하는 의식 자체가 높아져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곳에서 관심을 가지는 가운데 우리가 캠페인을 벌려 진흥법을 개편하던 문화적으로 기부금을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정부예산의 지원이 없더라도 시민들의 기부나 상속 등 여러 방법으로 문화예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위원들 가운데에서도 기금모금에 대한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 : 맞는 말씀이십니다. 사실 로또 복권에서 이미 수익금 일부가 진흥기금으로 지원되고 있긴 하지만, 복권 수익금만 믿고 있기에는 불안합니다. 언제 어떻게 수익금이 감축되거나 다른 기관으로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지원금 면에서 보면 기초예술은 응급



상태에 와 있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응급처치를 위해 5천억의 기금이라도 털어서 써야 하고, 또 복권 기금 같은 것도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또 그것을 명시해서 안정성도 확보하는 얘기들도 하는 거고요.

하지만 위원장님 말씀은 결국엔 캠페인이나 제도 개선을 통해서 문화예술의 중요성에 대한 분위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아니지만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김 : 현재 문화예술인들이 가장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기금재원 문제입니다. 다행히도 국회나 문화부 쪽에서 그 문제에 대해, 기금 잠식을 최소화하거나 적어도 예산을 현 상태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는 것 같아서 든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 : 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지원을 담당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관입니다. 사실 지원사업이라 했을 때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해야 하는지 애매모호 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가깝게 보면 예술위원회가 담당하는 사업들을 들 수 있겠고, 조금 더 넓게 보면 문화부 또는 다른 부처나 기관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포함해야 하겠지요. 이렇게 여러 곳에서 행해지고 있는 지원성 사업을 예술위원회로 일원화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예술인들이 관련되고 예술단체들이 관계되는 사업이라면 심의랄지 선정이랄지 이런 점들이 하나의 기관에서 행해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일원화 되지 않았을 때 가장 큰 폐단은 그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즉흥적으로 떠올려 바로 추천한 심사위원들이 현장에서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중요한 사업을 심의하는 경우마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연극만 해도 현장에서는 전혀 모르는 가운데 도저히 그 질을 믿기 어려운 단체의 해외순회 공연이 행해지기도 하거든요. 물론 국고 지원을 받아서죠.

어쨌든 이렇게 전문성을 지니지 못한 심사위원들이 심사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문화예술과 관련한 지원사업을 일원화시켜 전문성을 가진 심사위원들로 밴크를 만들어놓고, 그때그때 적절하게 선정하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김 : 사업을 일원화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지 않을

까요. 문화정책이나 문화행정은 다차원적인 종류의 사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 기관에서 모두 이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문화부에서는 정책적 차원의 지원을 맡고 민과 각 문화재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부와 구별되는 어떤 부분을 맡는다면 서로 경쟁, 보충하는 상대가 되어 더 발전하는 문화예술 분야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술위원회는 현장중심의 문화예술 문제를 가장 중점적인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현장중심이라는 말은 해석하기 나름입니다만 예술가 자신일 수도 있고, 예술가가 만드는 프로그램, 또 그것을 전달하는 미디어, 그것을 즐기는 향수층일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다양한 측면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큰 틀에서 문화부가 맡아야 할 부분과 예술위원회가 맡아야 할 부분, 또한 각 단체들이 맡아야 할 부분 등으로 분담한다면 서로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더 깊이 숙지하고 커버하지 않을까 합니다. 서로 경쟁상대이면서 동시에 협력자가 되는 거죠.

오 : 네. 그런 측면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예술위원회의 주 사업이 지원사업인데, 그 지원대상 선정과 평가에 관해 여쭙겠습니다.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지원하는 예술인들은 늘어만 가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심의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하겠죠. 이것은 평가에 관한 문제겠지요. 예술인에 대한 평가나 작품에 대한 평가,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김 : 지금 말씀하신대로 평가가 중요한 일입니다. 평가야말로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위원님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상당히 진지하게 토론되었습니다. 단지 기계적 나열식의 평가지원 항목들보다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좋

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이었습니다.

소액다건주의를 지양하고 다액소건주의로 할 것인지, 심사나 평가하는 위원들이 이 사업은 적극 추진할 만한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지원과 평가에 있어서도 예술가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이 많거나 적거나 우리가 지원사업을 한다면 예술가 한 개인에 대한 지원에서부터 큰 사업의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원 대상들이 있기 마련이죠. 모든 이들을 모두 배려할 것은 아니지만, 어찌되었건 간에 지원대상에서 탈락한 예술가들은 비판이나 반발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도 일이죠.

오: 선택과 집중을 말씀 하셨는데 옳은 말씀이십니다. 하지만 크고 중요한 사업에 집중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지라도, 아직까지 소액다건 지원이 사라지면 안 되는 것이, 신진예술가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신진예술가들이 그 분야에서 살아남을 확률은 지극히 낮습니다.

신진예술가들에게는 가능하면 모든 희망자에게 가능성을 열어주고 차후 엄격하게 평가하여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식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 물론 소액다건 지원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겠지요. 이 사항은 분야에 따라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가령 다른 분야는 잘 모르겠으나, 문학 쪽에서는 신진작가들이 꼭 불황인 것만은 아닙니다. 재능 있는 신진이라면 바로 출판사로부터 원고청탁이나 출판계약이 있으니까요. 3, 40년 전과는 많이 달라진 게 출판문학계입니다. 신인이라고 해서 소외되는 것은 아니지요.

오: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연극 분야는 신진들의 후원이 절실합니다.

김: 연극 같은 경우는 한 편을 공연하는 데 드는 비용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문학 작품의 발표 방법과는 많이 다르죠.

오: 문학과 연극 뿐만 아닌 다른 분야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김: 그런 점들을 소위원회의 위원들이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한 문제성을 포착하고 개선안을 어떻게 마련하는가에 맡기겠습니다.

오: 조금 포괄적인 얘길 하겠습니다. 그 동안 기초예술보다는 문화산업 분야의 지원이 늘어나고 발전해오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영화나 만화, 게임 같은 콘텐츠 분야가 급증하고 있죠. 그렇지만 문화산업이란 것도 기초예술의 진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데도 그 초점은 기초예술이 아닌 문화산업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런 왜곡된 분위기를 획기적으로 바꿀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요?

김: 현재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11인의 위원님들은 기초예술 발전에 아주 적극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십니다. 문화산업은 문화란 용어가 사용되긴 하지만 산업 자체로 봅니다. 순수예술 분야가 자본주의 시장성에서 실패하는 영역이라면 문화산업은 쉽게 말해 돈벌이가 되는 투자재구요. 그래서 정부에서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수예술 분야가 시장실패 영역이기에 우리가 그것을 지원하고 뒷받침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예술위원회의 가장 큰 보람일 것입니다. 지원 사업의 초점도 산업의 개념이 아닌 문화예술의 개념에 집중될 것입니다.

오: 맞는 말씀이십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예술 개념으로서의 지원이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역시 포괄적인 질문입니다만, 국제화 시대에 우리 문화와 예술의 국가적 가치와 경쟁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어떤 지원 정책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 한국이 국지적인 문화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여러 분야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 분야가 문학이죠. 좋게 말해 전통문화나 토착문화라 말할 수 있겠지만 언어 소통이 잘 안되니 그렇지 않을까요. 미술이나 음악 같은 다른 분야는 언어를 매개로 하지 않기에 소통하긴 훨씬 원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화·세계화로 나갈 수 있는 거구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티스트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 한국 문화예술의 세계적인 위상, 이것이 실제로 약한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준이나 어떤 수치에 비해 한국은 구석에 위치한 변두리 나라라는 인식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술위원회나 여러 재단들이 국제 교류를 많이 지원하고 후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외국사람들이 우리 음악을 듣고, 우리 미술 작품들을 소장하는 일은 분명 바라는 일입니다. 단지 조금 우려되는 점은 간혹, 꼭 외국에 나가야 좋은 작품이고 뛰어난 예술가라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착각을 하지 않도록, 교류는 교류고 국제적인 인정은 인정이지 해외로 나간다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령 꼭 노벨상을 타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는 것엔 공감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지요.

오 : 해외로 나간다고 해서 저절로 훌륭한 작품이 된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되겠죠. 연극의 경우는 그동안 교류가 원활하지 않아 아직도 시야가 좁다고 생각합니다.

김 : 연극도 몸짓은 있지만 언어로 전달하는 경우가 많으니 문학과 비슷한 소통부재가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문학이 책 한 권 가져가는 다소 간편한 것이라면 연극은 그 규모가 크니 상당히 어렵겠지요.

오 : 네, 제도적으로도 돕고 스스로도 문을 열어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움츠려 들고 폐쇄적으로 되기 쉽습니다.

김 : 실제로 뮤지컬이 해외에 나가 주목 받고 좋은 평가를 받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오 : 뮤지컬 <명성황후>와 너버벌 퍼포먼스 <난타>가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려 아직 내세울 만한 것은 못 된다고 봅니다.

김 : 한국이 근래에 와서 영화분야가 국제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영화산업이 날로 번창하고 있습니다. 재능 있는 젊은 인력들이 영화 쪽으로 많이 투입돼서 언어낸 성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문학이나 연극은 그런 점에서 상당히 한계가 있죠. 위원회에서 국제교류를 위해서 지원한다면 아마 문학, 연극 쪽에 배려를 많이 해야겠지요.

오 : 네, 기대해보겠습니다. 여러 구상하신 일들을 하 시려면 예술위원회를 구성하는 구조부터 탄탄해야겠지요. 지금 짜인 구조를 보니 위원회, 소위원회, 사무처 등으로 나뉘져 있는데요. 위원회와 사무처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하실 계획입니까? 물론 위원회 안에 사무처가 있긴 하지만요.

김 : 오늘 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마지막 진지하

게 토론한 부분이 사무처의 역할입니다. 사무처가 지금까지 문예진흥원의 일을 잘해왔지만, 역시 문예진흥원의 체제 속에서 일해 온 만큼 관 주도의 사무처의 역할은 지양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예술위원회로 새로운 이미지로 발족하면서 사무처의 직제나 인사도 새로운 방향과 이미지를 가지는 게 좋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구도를 마련하기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온 직원들이기에 더욱 그러하죠. 저나 위원들이나 아직까지 문예진흥원 직원들의 모든 면면을 파악하지 못했기에 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은 현 사무처의 직제 안을 새롭게 업데이트 하는 방향으로 하고, 앞으로 차차 바뀌나갈 계획입니다. 지원사업의 심사나 평가 등이 점차 바뀌게 되면 거기에 적합한 체제로 차차 바뀌어야겠지요. 앞으로 어떻게 표현될 것인지, 더 연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 : 그렇다면 사무처의 여러 일 중에서 정책기능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이라면 지원사업의 범위를 넘어서는 발연도 해야 할 것 이고…….

김 : 여기서 말하는 정책은 문화예술 지원정책을 칭하는데 어떤 전략으로 어떤 분야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이라는 정책이겠죠. 사무처에서 여러 정보와 자료 등을 모아 방안을 제시하면 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수립하는 구조로 나가야겠지요. 사무처는 위원회가 일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수행하는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곳이니깐요.

오 : 잠시 언급하셨지만, 소위원회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사는 소위원회의 역할을 어디까지 둘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원 심의를 소위원회가 직접 할 것인가, 아니면 별도의 심의위원을 구성하고 소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현장 분위기를 잘 파악해 거기에 맞게

방향을 설정하는 정도의 역할을 할 것인가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요?

김 : 11인의 위원을 중심으로 소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소위원회가 예술위원회와 현장예술가들 사이에서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매듭을 지어주는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위원회에 그 역할과 위상을 높여줄 것입니다.

저로서는 위원회와 사무처, 그리고 소위원회 3대 조직이 유연하게 결합해 예술위원회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오 : 예술위원회는 전문성을 목표로 한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두 전문가들이 모여 구성된 조직이지만, 전문화된 조직을 만들기 위한, 전문화를 강조하기 위한 구상이 있으시다면?

김 : 위원들이 11명 인데요, 위원들 모두 장르가 다르고 세대도 다르고 성향 이른바 코드도 모두 달라서 11명이 앉아 회의를 할 때는 무척 활발한 분위기입니다. 위원장인 저의 역할은 활발하고 다양한 위원들을 어떻게 조절해서 하나의 의지로 수렴 표출하느냐 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해 각 분야의 위원들 또한 다른 분야에 관심을 한다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일은 위원회에서 모든 동의와 합의의 절차를 걸쳐 실행하게 될 것이고, 서로 상치되는 부분들도 토론을 통해 양보하거나 설득하여 화해될 수 있겠지요.

오 :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인들을 위원들로 선정했지만, 비상임이기 때문에 다른 일과 병행하는 위원들이 많을 텐데, 그렇게 된다면 물리적으로 그 전문성을 발휘할 시간이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과거의 문예진흥원보다 위원들이 해야 할 일들이 분명 많아질 테니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 위원장만 상임이고 다른 위원들은 비상임이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점도 없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많은 일들을 서로 토론하고 합의하면서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해낼 것입니다.

오 : 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이전에 문학 분야 위원으로 먼저 선정 되셨지요. 문학은 다들 알다시피 문화예술의

가장 기본적인 콘텐츠입니다. 문학에 대한 지원계획이 따로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 : 문학을 문화예술의 가장 앞자리에 서서 기초라고까지는 할지 모르겠으나, 언어예술로서의 특징은 가지고 있지요. 하지만 언어를 책이나 그 비슷한 형태 외 다른 문화적 콘텐츠로 바꾸기는 힘든 것 같아요. 가령 연극은 비디오로 찍어 TV로 중계 할 수도 있지만, 책은, 물론 낭독이나 드라마로 각색해 제작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문학이 아닌 게 되는 거죠. 문학 콘텐츠로서의 기능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글을 쓰고 출판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도록 유도할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 대체 방법으로 전자 e-book이나 CD로 제작하는 전자도서, PC문학의 도입이 있겠지요. 하지만 이것도 그리 활발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문학이 어떻게 지원 받을 수 있을지 연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가장 중요한 문학 사업으로 '우수문학 도서구입'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문학 분야에 지원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우수 문학 도서를 구입해 도서관이나 소외지역에 보낸다면 그 책을 받는 곳은 물론 출판사, 창작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니까요.

사실 요즘 활자문학보다는 인터넷을 통한 PC문학이 빠르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PC문학은 대체로 판타지나 무협, 멜로류가 많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류들은 순수문학 혹은 기초문학으로 간주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문학'이란 이름으로 불리긴 합니다만 문학의 성패에 따라서 전자문학컨텐츠로 볼 수 있느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 : 문학 쪽에 그런면이 있었군요. 위원장님 말씀 중에 장기적 계획으로 향수층 지원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생각하면 향수층 지원이 곧 문화예술 교육의 이면이 아닐까 하는데요.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김 : 교육 쪽에서 가장 실패한 분야가 문화예술교육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예술

교육은 입시 위주입니다. 예술은 아이들에게 정서적 교육을 통해 삶에 그대로 투영될 수 있는, 즐기며 향유할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하는데 말이죠. 전혀 반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문화부에서 예술교육과를 신설해 예술교육을 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향수라고 말하면서 정작 그것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술교육과도 신설되었으니 문화부에서 더 적극적이고 깊이 있는 예술교육이 이뤄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1차 적으로 입시 위주인 학교 교육부터 잘못됐기는 하지만, 우선 학교에서의 예술교육이 가장 기본이 되겠지요. 요즘은 문화센터나 각종 문화예술단체에도 예술교육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점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 : 문화예술이 삶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치성 면이 있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담격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문예진흥원이 전남 나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술위원회가 가는 것이겠지요. 2012년까지 이전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발표를 들었을 때와 현재 위원장이 되신 후 몸담은 기구가 전체 이동을 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는 현재와 그 느낌은 어떤지요?

김 : 2012년이라면 제 임기가 훨씬 지난 후니까 저로선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행정수도이전 자체를 찬성하는 쪽은 아닙니다. 하지만 행정수도를 지방으로 분산한다는 원칙을 수행한다면 예술위원회도 옮겨가는데 동의해야 되지 않을까요. 현재는 문화예술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지만 전통적인 측면을 본다면 지방, 즉 호남 쪽이 훨씬 유리할 것도 같습니다. 그 문제는 제 다음 위원장님께서 더 많이 고민하시겠지요.

오 : 문화예술인들이나 문예진흥원 시절부터 있던 직원들은 상당히 많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김 : 그렇겠지요. 파주에 출판단지가 생기면서 출판사들이 파주로 많이 옮겨갔습니다. 같은 분야가 한 지역에 집중되다 보면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 바람에 출판사를

그만둔 분들이 많습니다. 집과 직장의 거리문제도 있고 하니 기러기 가족들도 생기더군요.

지방으로 이전한다면 나주가 가장 적절할지는 모르겠으나, 이전에 따른 문제들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 : 지방이전으로 인한 자녀 교육 문제와 기러기 가족이 될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더라고요. 결국은 또 교육 문제네요. 위원장 되시고 얼마 되지 않아 이것저것 신경 쓰실 일이 많으실 텐데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이니까 어려운 점도 많으시겠조.

김 :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예술위원회에 왔을 때 10인의 위원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개인적으로 아는 분은 딱 한분이요, 이름을 들어 본 분도 한 두 분 정도였습니다. 저한테는 예술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으면서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일로 훈련을 받고, 위원들이나 직원들과 새로운 교육을 받는 느낌이어서 여러 가지로 새로운 인생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오 : 분명히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예술위원회 직원들과 함께 계획하신 것들을 진일보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김 : 감사합니다. 진일보하기 위해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예술위원회의 새로운 이미지를 살리면서 완전한 개혁을 하느냐 아니면 문예진흥원이 쌓아온 것들을 계승하며 안정된 돈을 유지하느냐 많은 고민을 하면서 점차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 : 그런 문제들은 늘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힘드신데 오랜 시간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담 드리는 것 같지만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한국 문화예술을 위해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